

공간을 통해 시간을 걷는다

서울공예박물관

송하엽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개요

위치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3길 4
용도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근린생활시설(소매점)
대지면적	12,829.8m ²
건축면적	3,624.1m ²
연면적	10,590.19m ²
규모	6개 동, 지상 3~5층
높이	19.95m
건폐율	28.25%
용적률	82.54%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보수보강
구조설계	(주)TSEC
설계	(주)행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용호), 송하엽(중앙대학교), 천장환(경희대학교)
시공	아이엠유건설(주)
기계·전기설계	(주)다이테크설비컨설턴트
설계기간	2017. 1.~12.
시공기간	2018. 5.~2020. 12.
공사비	390억 원
건축주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공예박물관 야경



본관과 전면광장

시대별로 건물들은 저마다의 형태를 드러내며
'시간의 흐름'이 아닌 '시간의 단속'의 경험을 준다.
학교의 터는 21세기의 예술 공공공간으로 바뀌어
도시의 단절된 시간과 골목길을 엮는 힘이 있는 공터가 되었다.





© 박영체, 송하연 제공



© 박영체, 송하연 제공

상 크래프트헛
하 기증공예관

©박영채, 송하연 제공



©박영채, 송하연 제공



상 기증공예관과 본관을 잇는 통로
하 기증공예관과 광장



© 박영채, 송하연 제공



© 박영채, 송하연 제공

상 본관 전시
하 사교석담과 어린이 박물관

© 박영채, 송희연 계단



© 박영채, 송희연 계단



좌 열레를 형상화한 어린이 박물관
우 은행나무 동산과 계단

차가운 건물들이 만든 서울의 풍경에
흙과 같은 따뜻한 재료인
테라코다, 무늬 있는 대리석, 마사토 등으로
온기 있는 장소를 형성하며,
터의 기억과 동시에 따뜻한 감성을 유발하는
'시간 연결체'인 것이다.



© 비영적, 순이영적, 안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시간이 쌓인 듯한 공간

기억과 감성을 엮는 '시간 연결체'

서울공예박물관은 '박물관이 된 학교'로 일컬어진다. 2016년 10월 29일부터 매주 토요일 광화문에 촛불문화제 행사와 더불어 풍문여고의 은행나무는 노란색으로 변해 갔다. 처음 설계 공모 제출을 위해 팀 작업을 할 때 60대 소장님께서 “풍문여고 하면 은행나무다”라고 하신 이야기가 딱 들어맞았다. 현장 방문 때 교실에 버려져 있던 교지의 표지도 은행잎으로 그려져 있었다. ‘어떻게 하면 감고당길에서 은행나무가 잘 보이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윤보선길로 학교 담을 열어 사람들이 운동장을 돌아다니게 할까?’ 하는 생각을 하였다. 마치 초등학교 때 정문으로 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는 마음으로 학교 담의 여러 곳을 열고 싶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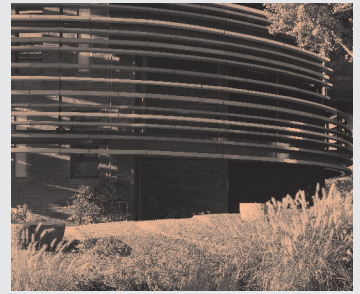
빈 교정에 들어가니 오래된 학교 건물이 익숙하였고, 문화재 지구여서 건물을 선불리 덧댈 수 없다는 현실적인 제약이 디자인의 모티브가 되었다. 또한 옥상에 올라가 보고, 한옥과 학교들로 이루어진 북촌의 풍경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고 싶다는 마음을 담아 1930년대부터 지어진 다양한 연대의 건물 동들의 품격을 유지하며 새롭게 하였다.

시대별로 건물들은 저마다의 형태를 드러내며 ‘시간의 흐름’이 아닌 ‘시간의 단속’의 경험을 준다. 학교의 터는 21세기의 예술 공공공간으로 바뀌어 도시의 단절된 시간과 골목길을 엮는 힘이 있는 공터가 되었다. 원래 학교가 가진 노란색 입면의 따뜻한 느낌을 유지하면서 차가운 회색 도시에 온기를 더하기 위해 베이지색 대리석으로 본관 노란색 입면을 재구성하고, 학교 창문의 비례도 업데이트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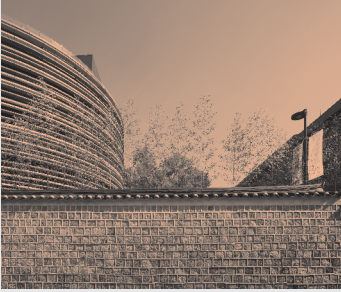
감고당길의 아이콘이 되는 어린이 박물관은 기존 십자 형태의 건물을 동그란 원형의 건축물로 만든 것으로, 마치 공예품처럼 연실을 감는 얼레를 형상화하였다. 원형의 테라코타로 대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실을 여러 번 감듯이 무게 있게 표현하였고, 이 자리를 오랫동안 지켜온 은행나무가 사방에서 보이도록 원형의 배경이 되게 하였다.

서울공예박물관은 시간의 흔적들이 시간의 단속을 통해 전체가 되는 ‘시간 연결체’로서의 도시공간을 형성한다. 또한 터의 기억과 도시의 따뜻함을 유발하는 공간장치로서, 박물관을 들어가지 않아도 따뜻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 박영채, 아키텍트연



상 하늘에서 본 서울공예박물관
하 얼레를 형상화한 어린이 박물관



상 사고석담과 어린이 박물관
하 지역공예관과 본관을 잇는 통로로
내다보이는 은행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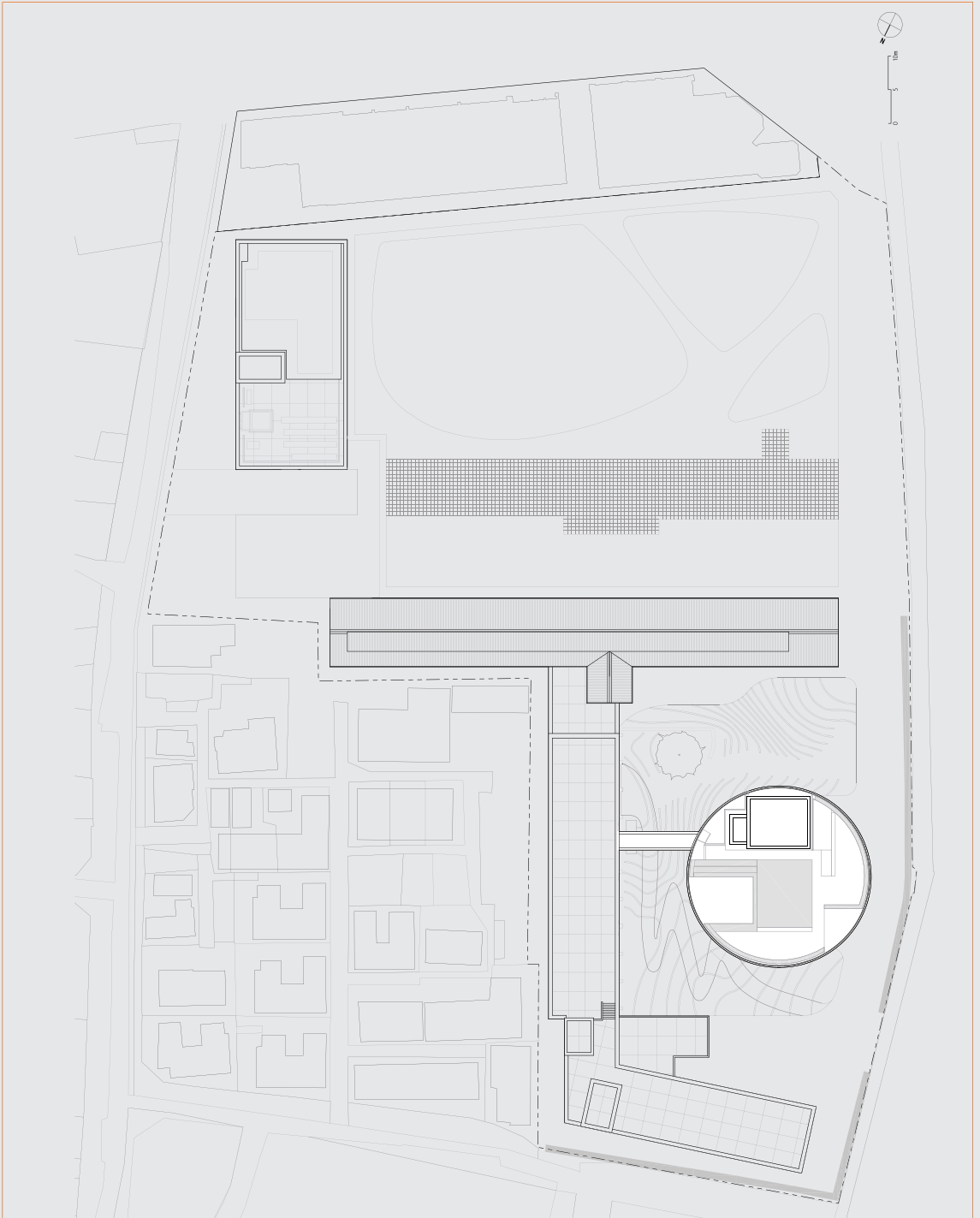
도시의 고고학, 재생의 원리

풍문여고가 있기 이전에 안동별궁이 위치하였던 서울공예박물관의 터는 궁 동쪽의 종친부와 더불어 안가가 자리 잡았던 곳이다. 이 공간을 21세기의 예술 공공공간으로 삼아 도시의 단절된 시간과 골목길을 엮는 다소곳한 마당으로 탈바꿈시키고자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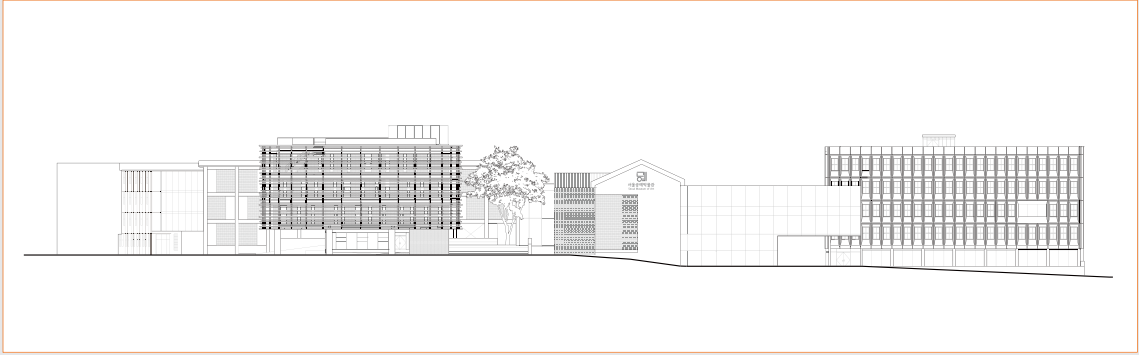
주변의 공공문화시설과 시민들의 다양한 공간은 연속되는 선과 면 그리고 건축적 볼륨으로 이어져, 근대화에 의해 단절된 시간과 공간을 공공의 장소로 다시 엮어준다. 인사동길로부터 시작하는 보행길의 흐름은 남북으로 연속되며, 높은 담을 낮추고 새로 제안되는 남쪽의 아트플랫폼은 도시의 불확정적인 공공공간을 마련하고, 북쪽의 연지와 후정의 공간은 돌담을 돌아서서 들어갈 수 있는 은밀한 공간이 된다. 옛 외부공간은 박물관으로 재생되는 학교 건물 매스를 비움으로써 시간적·공간적으로 더 치밀하게 엮인다.

의도된 질서보다는 땅에 축적된 역사의 시간을 엮는 것으로부터 얻어진 질서가 도시의 시간 연결체가 되는 것이다. 대지에서 찾은 오래된 시간의 흔적은 도시에 고고학적 깊이를 더한다.

감고당길에서 내려오다 만나는 사고석담의 모서리는 담장의 기단석으로 쓰이는 석재 3개를 바닥에 묻어 보이지 않는 장대석 위에 수직으로 쌓아 해학적으로 보강하였다. 이런 모습은 보존을 통해 유지하며, 더 내려가다 보면 사고석담이 콘크리트 벽으로 흉하게 끊어진 부분 아래 남은 문지방이 있다. 아마 별궁의 후정을 드나드는 뒷문이 있던 곳일 것이다. 콘크리트벽을 걷어내고, 그곳을 후정을 바라보는 창으로 변용하여 옛것에 대한 오마주를 한다. 은행나무의 남쪽 석축은 그대로 유지하고, 나무 밑의 가파른 계단을 감고당길로 완만하게 펼쳐 지형을 회복하며, 은행나무 남쪽 석축을 따라 예절관과 크래프트허트로 이어져 은행나무 마루를 통해 북촌을 내려다보는 조망을 가지게 된다. 높은 곳에서 물이 흘러서 모인 예전의 연지는 원래의 위치에 복원되어 관관하였던 학교의 땅에 축축한 기운을 만들고, 높은 곳과 낮은 곳의 위계를 설정한다. 둔덕, 돌담, 은행나무, 연지 등 땅이 가지고 있는 요소는 고고학적으로 재발견되며 도시를 재생하는 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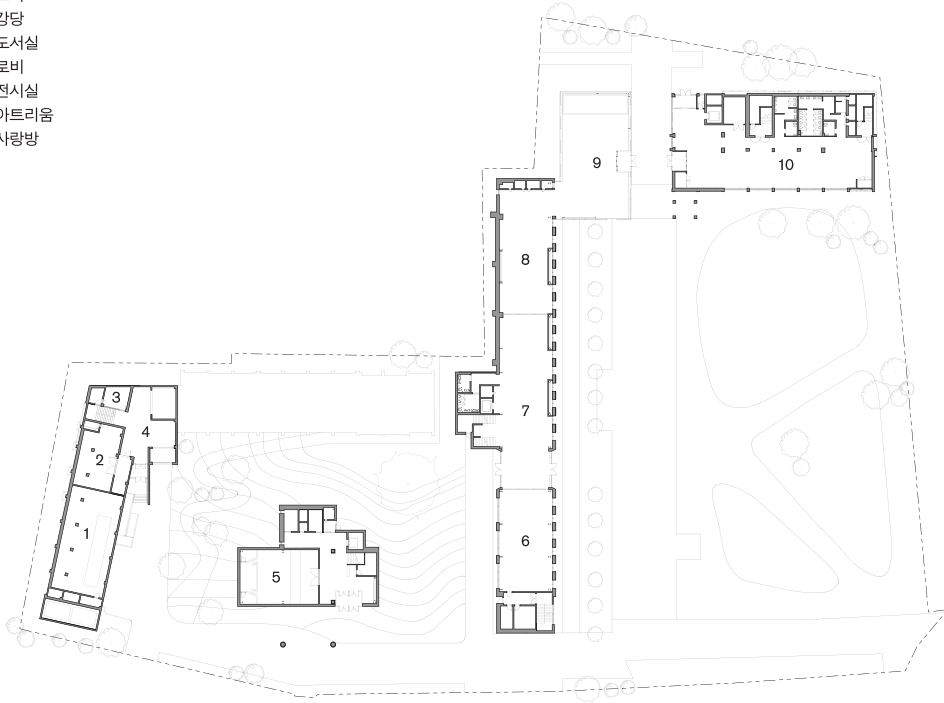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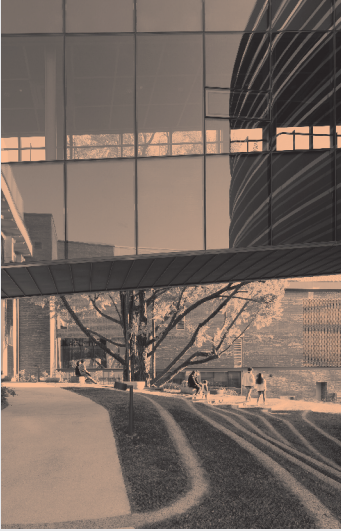


입면도

- 1 전기실
- 2 펌프실
- 3 방재실
- 4 로비
- 5 강당
- 6 도서실
- 7 로비
- 8 전시실
- 9 아트리움
- 10 사랑방



1층 평면도



은행나무 동산과 계단

담의 휴먼스케일

기존 대지의 돌담은 공간을 나누기만 하였으나, 담의 새로운 모습은 보행자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대지로 유도하고, 길과 대지의 공간을 연계토록 한다. 북쪽 정독도서관에서 내려오는 길에서는 높은 담장의 원형이 유지되면서 후원과 동시에 보행길을 위요하며, 남쪽인 사동에서 오는 길은 낮은 담장으로 되어 시선이 교차해 길과 마당이 서로 교감하게 된다. 담은 휴먼스케일에 맞추어 존치와 더불어 변형이 된다. 남는 사고석은 새로운 낮은 담을 만드는 재료로 쓰여 복층은 휴먼스케일의 연속이 된다.

지형의 복원

별궁터는 감고당길보다 1m 높고, 오래된 은행나무는 터에서 궁의 뒤편인 제일 높은 언덕에 있었다. 터의 북쪽 높은 언덕 아래에는 연지가 있어서 운치를 더했었다. 현재 운동장은 윤보선길의 레벨에서 학교레벨에 맞추어 박석을 깔며 아트플랫폼을 만들어 광장으로 활용하게 하였다. 마치 종묘 정전의 월대처럼 낮에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밤에는 별을 보는 곳이다. 광장은 길이자 마당으로 향후 대한항공 부지의 개발 시 공공보행공간이 연장할 수 있게 고려한 너른 공간이다.

은행나무 동산은 원지형을 회복하며 서서히 감고당길로 결사를 지어 내려오는 곳이며, 계단과 자연이 어우러진 화계를 만들어 뒷동산이 회복된다. 뒷동산에서 동관 밑의 필로티를 통해 복층을 내려다본다.

도시의 바닥과 가변적인 집

도시의 바닥은 평평한 판으로서 서로가 동등하게 서서 교감하며 교류하는 곳이 된다.

아트플랫폼(전면광장)은 새로운 바닥이 되어 작가와 관람자들이 평등하게 만나는 곳이다. 아날로그 세대의 노련한 장인, 디지털 세대의 젊은 작가, 한국미를 배우고자 하는 외국인, 그리고 관람자들이 공예문화를 통해 교감할 수 있는 곳이다. 이 너른 바닥을 맞잡고 있는 크래프트햇은 공간의 가변성이 극대화된 집이다. 1층의 공간은 바닥이 중심이 되며 비워져 있다가 공예의 느낌을 극대화하는 분위기로

연출이 되고, 박물관이 끝난 저녁이나 주말에는 공예시연·강연회·토론회 또는 메이커즈 페어 등이 가능한 충분한 공간이다.

이 연장된 대지를 동서로 가르는 거대한 바다판에서는 야외에 설치된 공예 작품을 보며 이곳을 거닐 수도 있고 공예강의를 듣거나 크래프트헛에 자연스럽게 들어가 새로운 공예의 경향을 맛볼 수도 있고, 작가와도 만나며, 주말에 프리마켓에서 작품도 두루 보고 살 수 있다.

크래프트헛: 싱크탱크 플랫폼

21세기의 공예는 서로 모여서 만드는 방식의 유형문화적 가치를 추구하며, 이를 통해 공동체의 삶의 지평을 우리 땅의 사물들과 함께 확장하는 것이다.

크래프트헛은 ‘작고 소박한 창작소’라는 뜻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정신적 가치를 공유하여 창의성을 발하는 곳이다. 태곳적 인간들이 축제를 위해 사물을 빚고, 두드리고, 꼬으며 축제와 일상을 위한 도구를 만들었듯이 크래프트헛에서는 작가와 시민이 서로 교감하며 공예문화를 빛낸다. 작가들이 이 공간에 와서 감명을 받고 작품 모티브를 얻으며, 또한 관람자들이 작품을 바라보는 관점을 배우는 곳이다. 공예를 활성화하는 다양한 시적과 학술적·이벤트적 활동을 통해 공예문화의 정수를 일깨우는 싱크탱크 플랫폼으로 작동한다. 낮에는 전시장과 연결되어 이용되며, 저녁에는 로비나 과학관의 카페와 함께 늦게까지 오픈되어 작가와 시민이 만나고 공감하고 토론하며, 공예품의 생산에서 판매까지의 네트워크를 브레인스토밍하는 장소로 이용되게 하고자 하였다.

공공전시와 공예시연의 장소로서 아날로그적 장인과 디지털 기술의 젊은 작가들이 연계하여 작품 제작의 오래된 비법을 전수함과 동시에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여 시도하는 생산기지가 될 것이다.



상 본관과 전면광장
하 크래프트헛



© 김영재, 송하역 제1관



상·하 본관 전시

근대유형의 재해석

도시는 여러 시대의 건축가들이 기울인 노력이 집합된 산물이다. 풍문여고 또한 단일한 시기에 지어진 학교가 아니라 1920년대의 본관에 이어 1960~2000년대에 걸쳐 다양한 시기의 건물들로 구성되었다.

또한 대지 주변으로는 북촌의 도시형 한옥들과 더불어 오래된 근대학교건물들이 하나의 유형을 이루고 있었다. 학교건물의 원형은 최대한 보존하며, 필요한 기능을 위해 새로운 코어를 삽입하는 형식으로, 건물의 외벽을 비롯해 실내의 계단이나 목조트러스와 교실 벽 등은 학교건물의 기억을 남기고, 오래된 것을 존중하며 기존대로 쓰며, 비움을 통해 땅과 더불어 새롭게 발견되는 공간의 깊이를 더한다.

어린이 박물관의 가치

감고당길에서 서울현대미술관과 송현동 공원부지에 면하여 향후 도시의 변화에 있어 맥락적 가교의 위치에 있으며 400년간 터를 지켜온 온 은행나무를 돋보이게 하는 위치에 자리한다. 반복되는 원의 형태는 대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실을 여러 번 감듯이 무게 있게 표현한다. 또한 공예의 과정인 짜기, 반죽하기, 굽기, 철을 다루기 등 등의 과정이 테라코타 외장의 제작 과정에 녹아 있어 건물을 바라볼 때 공예의 협동적 과정이 연상되게 한다. 건물의 외관이 마치 공예품처럼 느껴지게 하며, 형태한 물성변화의 과정을 보는 이들이 느끼며 만든 이들의 협동에 대한 고마움과 동시에 그 결과를 느끼는 자존감을 불러일으키며 공간에서 협동적 커뮤니티에 속함을 깨우치게 한다.

기증공예관: 기하학적 구성미와 따뜻한 추상의 발견

기증공예관은 풍문여고 시절 과학관으로 사용되었던 건물이다. 이 건물은 1966년경 김정수 건축가가 설계하였는데, 모더니즘의 기하학적 구성미가 뛰어난 건물로 기존 입면이 가진 원래의 아름다움을 최대한 살리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윤보선길에 면한 후면부 일부에는 청고 벽돌을 적용하였는데, 모던한 기하학적 구성미와 앤티크한 감성이 더해져 윤보선길에 새로운 분위기를 환기한다. 또한 공예 전시가 일어나는 장소임을 가로에 드러낸다.

본관: 기억에 감성을 더하다

본관은 인사동에서 안국동으로 넘어오는 감고당길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물로, 풍문여고의 대표적 모습으로 사람들의 기억에 남아 있다. 이 건물은 1930년대 후반 경교장 설계자이기도 한 건축가 김세연의 작품이다. 혹자는 일제강점기의 건물을 그대로 반영하였다고 하지만, 따뜻한 반복이 이루어진 정갈한 입면이다. 풍문여고의 기존 입면이 가지고 있는 기하학적 질서를 최대한 유지함과 동시에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자 하였다. 기존에 노란 페인트였던 벽면을 따뜻하면서도 퇴적된 패턴이 남아 있는 룩소르 베이지색으로 치환해 기억을 유지함과 동시에 도시에 감성을 더하고자 하였다. 벽을 쓸면서 건다 보면 마사토 위의 꽃사과나무와 공깃돌과 같은 분청사기 의자를 만나게 되고, 굳건히 반복되는 느낌이 감성을 자극한다.

새롭지만 새롭게 보이지 않는 앤티크한 후면부 또한 청고 벽돌로 마감하였는데, 청고 벽돌은 현대공예관과 관리동 일부까지 사용됨으로써 전사가 일어나는 공간을 암시함과 동시에 지역공예관의 루버 안쪽 입면에도 사용되어 전체적으로 은행나무를 둘러싸고 은은한 역사의 분위기를 만든다.

오래된 정원

400년 된 은행나무를 중심으로 안동별궁 후원이 가지고 있는 시간의 켜를 드러내고, 지형을 활용한 화계와 담장, 연지를 통해 오래된 시간의 풍경을 재현한다. 담장을 열고 단음을 통해 후원공간의 영역성을 갖도록 하였으며, 아트플랫폼의 동적활동은 사이마당을 지나 오래된 정원으로 진입하면서 속도를 늦추고 사색의 공간을 공유하게 된다. 은행나무와 마사토 그리고 우거진 초록은 오래된 그들의 공간을 재현한다.

시간의 흔적들이 전체를 이루는

서울공예박물관은 기존 학교 건물을 통해 추억을 역사로 기억함과 동시에 현재의 구축을 더하여 그 모습이 만들어진다. 차가운 건물들이 만든 서울의 풍경에 흙과 같은 따뜻한 재료인 테라코다, 무늬 있는 대리석, 마사토 등으로 온기 있는 장소를 형성하며, 터의 기억과 동시에 따뜻한 감성을 유발하는 '시간 연결체'인 것이다.

©본관체, 안국역전



상 본관에서 보이는 은행나무 동산
하 은행나무와 어린이 박물관